

2018년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차 전체 회의(워크숍)

일 시        2018년 4월 10일 (화) 15시 15분

장 소        그레뱅 뮤지엄 1층 회의실 (이벤트룸)

# 2018년 제3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제2차 전체회의(워크숍) 회의록

개 회 2018년 4월 10일 (화) 15시 15분

장 소 그레뱅 뮤지엄 1층 회의실 (이벤트룸)

## 2018년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차 전체 회의(워크숍) 회의록

개 회 2018년 4월 10일 (화) 15시 15분  
장 소 그레뱅 뮤지엄 1층 회의실 (이벤트룸)

000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장소 어떻습니까? 시청에 회의실이 우리 한 20여분 하는 회의실이 몇 개 없습니다. 저도 이 회의실은 처음 와 보는데, 저희 지속위 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가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다수 위원 웃음. ) 여기는 그레뱅 박물관입니다. 서울시 건물인데 과거에는 서울시 사업부서와 시의회 일부가 입주해 있었는데 기존 입주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프랑스 그레뱅박물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시면 마네킵이 하나 있는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 다수 위원 웃음. )

저는 평가담당관 이형삼입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뵈었는데, 오늘 또 처음 뵈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

000위원

조례에 의해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항상 한자리에 같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시간을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못 나오신 새로 오신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또 그다음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태선 위원장님 주제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고, 또 우리 오수길 간사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과공유 및 3기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료도 간사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 후에 잠깐 쉬시고 나서, 질의 답변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분과별로 저희가 좌석을 배치했는데, 오늘은 분과 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우리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참석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이데, 지금 세 분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분과에 계시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오혜연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000위원

네, 환영합니다. 또 점검 분과 청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이선경 위원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

000위원

교육대학교입니다. 교육대학교입니다.

000위원

청주, 아,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님이시군요. 추진기반분과에 경기대 관광문화대 학장 한범수 위원님이십니다.

000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000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못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전체 위원 명단은 저희가 자료에 뒀습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소속 분과에 어느 분이 오셨고 어느 분이 못 오셨는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간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위원회 때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지만, 1차 위원회 부터 그런, 이번 오늘까지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3일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시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셨고, 위촉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서울SDGs 반영한 지표개발, 자치구컨설팅 방안, 그리고 향후 위원회 기능 및 분과 간 업무 조정 등, 2018년도 추진 계획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월13일 운영협의회에서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간사님과 함께 2018년도 추진계획안 및

제3기 지속위 운영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또 3월20일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금일 2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오경환 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는 34분의 위원님이신데, 현재는 33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우리 시의원님들은 3분이 참석하시는데, 아마 다시 선거가 있어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다시 위원으로 추천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추천을 받게 되면, 다시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분과 회의를 예비 좌석 배치로 했는데, 우리과에서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어느 분과에 소속하기를 원하시는지 1차로 조사했고, 조사를 했더니 개발 분과에 너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각계각파로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흔쾌히 승낙 해 주셔서 이렇게 균형 있게 위원회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는 위원장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기가 조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0위원

서서 할까요?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아닙니다.

000위원

괜찮습니다.

000위원

예, 안녕하세요? 지난 2월 달에 1차 회의를 하고, 한 달 한 보름 남짓 만에 2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회의는 사실 오늘 뭐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1차 회의 당시에 지난 2기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3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기가 성과를

내고, 또 정말 그 시정에 기여하는 그런 지속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해 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의 그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  
참석 못하셔서 아쉽기는 한데, 오늘 그 우리 오수길 감사님께서 오늘  
회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들, 우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그러면 먼저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과 공유 및 3기 로드맵에 관해  
서, 오수길 감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뒤쪽에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0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분씩 발표를 시켜드리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하  
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간사이기도 하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  
다 받아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1, 2기 때 성과, 그다음에 3기의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러니까 우리 2기 때까지도 하신 분, 1기 때 하신 분 이렇게 계신데,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처음 위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이전 단계를  
설명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새로 참여하신 분  
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속  
위의 성과 그리고 3기의 로드맵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년에 제가 2016년도에 그 깜짝 놀랐던 게, 이 유채 씨를 중국에서  
수십 톤을 수입을 해 가지고 유채꽃 축제를 하려고 강원도, 충청도 이  
런 데서 대거 수입을 했는데, 꽃을 피워놓고 보니까 다 GMO인 거예  
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GMO 유채 씨가 들어오면 그게 관리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가짜 GMO씨, 아니 가짜 유채꽃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GMO일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GMO가 전국에 퍼져 있는 건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관세청은 ‘우리는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 식약처는 ‘우리 그럴 줄 몰랐어.’ 그다음에 국민들은 환경부 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관할 재량,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 행정서비스라는 게 총합 서비스로 보는 거지 이거는 환경부 일인지, 이거는 식약처 일인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속 가능 발전 행정체제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틀을 깨고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 이 총합서비스를 전달해 줄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협치 협의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 협치 협의회 무엇을 위한 협치냐?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어느 위원님이 ‘그거는 지속위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거 잘 안 될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지자체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가 90년대 초반에 지자체, 지방자치가 복원됐을 때부터 용인, 성남 이쪽이 난개발의 상징이었는데, 여전히 난개발인 이유는 자치분권 권한이 없으니까, 크게 뭐 하나 터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지속이 되는 거고, 평창에서도 ‘저게 빗잔치가 될 걸 알지만 큰 사업을 해야 기억나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한 1억만 받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텐데, 중앙위에서 한 10억, 100억 이렇게 받으려면 또 우리 돈을 10억, 100억을 부쳐야 되는 그 매칭펀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도 추락하고 사회는 더 망가지고, 환경은 보존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이 소식을 그 제작년에 봤을 때도 경남이 GRDP가 2배 늘 때 충남이 6배가 늘었으면 훨씬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떨까를 보니까, 충남이 6배가 늘기는 했지만 소득 역외 유출이 1위라서 경제성

장에 막 몰빵을 하니까,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들어오는 오염기업들을 다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그 법인세는, 법인 등록은 수도권에서 해 봤으니까 법인세는 다 나가고 이런 구조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을 해 봤자 환경 악화가 되고, 사회는 별로, 이런 형식이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충남도가 지난 민선5기일 때 이 내생적 발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3농정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 그런 방향 점을 잡았던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87년도에 우리 공동위 미래보고서에 담고 있는데, 그때 이 보고서에 지속가능발전을 만들면서 정치부터 국제체제까지 바뀌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행정체제를 어떻게 전환할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때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자.’ 이 얘기인데,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 칸막이 행정, 그다음에 자기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엘리트지만 동질적인 집단이 모여 있으면 이 제3의 대안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이 교통부서에 목표를 달성하면 차가 빨리 달리는 정책이 목표일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차가 조금 덜 다니고 인도가 넓어지는 게 목표일 수 있는데, 제각기 목표를 달성을 한들, 우리 국민에게 행정서비스 총합이 0이 돼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각기 각 부서별로 성과 관리는 하지만, 그 성과를 잘 달성해서 이 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총합은 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평구에서 실제 이 부평구의 지속위 회의 때 있었던 일인데요.

기존에는 총무과장님 따로 열심히 일하고, 청소년과장님 따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속위에서 이 분과가 같이 모이니까 ‘주민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민간위원님이 ‘그거 왜 그거를 3층짜리로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전에 3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또 3층으로 지었죠?’ 그러면, ‘그 전에 3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선례를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주민센터를 생산해내면 되는 건데, 처음으로 이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보건소장님은 ‘그 동네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랑 협의했으면 1층에다가 보건소를 같이 지었을 걸.’ 청소년과장님이 ‘청소년들도 많은데 3층에 회의실을 강당처럼 지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청소년음악실 따로 만들 비용, 보건지소를 따로 만들 비용을 합해서, 그 동네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총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런 거 알겠지만, 이 행자부에서 총리실에서 늘 이 쪼아대는 이 목표체계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략목표 세우고 성과목표 세우고 성과지표를 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과제, 관리하는 지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교통과는 교통과에 성과지표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약처에서 ‘식품의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 성장 동력을 갖춘다.’ 이런 거로 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면 되고, 지역의 전통산업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GMO가 들어왔을까?’ 이 고민은 안 해도 되는 체제기 때문에 GMO 씨앗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성과지표를 보면, 결과지표도 있고 산출지표도 있지만 주로 우리 부서에 그 실현 가능한, 측정 가능한 이렇다 보니까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그냥 예산 투입하면 되는 거,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면 되는 거, 그런 그 업무만 늘 있기 마련인 것 같고요.

또 지표를 만들 때 정책 대표성을 보기도 하고, 인과성을 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측정가능성이나 아니면 비교가능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무슨 국, 무슨 과에 무슨 팀에 내 업무 이렇게 많은데 성과평가

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청렴도 평가도 하자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하자고, 지속가능성평가 이거 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다, 추가적인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걸로 재구성하자.’ 그러니까 내 목표가 우리 국에, 과에, 팀의 내 업무가 아니라 내 업무는 ‘서울시정에 몇 번째 목표에 기여하는 업무다.’ 이렇게 바꾸자는 게 이 지속가능성의 평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다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세운다고 하면, 기존 방식은 우리도, 우리 그 지속위 1기 때도 우리 서울연구원이 기초연구를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그 수립할 때까지 서울연구원에 그냥 기대했던 게 저는 조금 더 아쉬웠다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전략도, 이행과제도 그냥 용역사가 만들 가지고 그냥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경제부서에서, 사회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단일과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 이게 공무원 책무인데, 이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책무는 누구한테 있냐, 시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서울시정의 목표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목표들로 세우고, 공무원들이 제각기 일하는 그 업무가 그 목표에 기여하게 만드는 거여야 되는데, 기존에는 용역사가 와서 전략 세우고 이행과제 세우면 ‘저거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부담을 가지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제각기 놀 거나 추가적인 업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생각해 보면, 경제지표에 이르면 취업자 수 증감률 이게 있으면, 이것을 경제부서 혼자서 해 가지고 저 지표가 개선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회부서에서도, 환경부서에서도 이르면 사회적 경제, 환경영역에 어떤 경제영역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취업자 수가 증가율이 올라갈 거고,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이게 환경과에서 잘해 가지고 저게 줄게 되냐 이거죠.

경제부서나 사회부서나 공동으로 해야죠.

그래서 전략이나 이행과제 이게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전략을 나는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전략을 나는 어떻게 달성할까?’ 그런 관점에서 재구성하자, 이게 지속가능발전 목표고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 전주시 거를 알기 쉽게, 여기는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몇 달 간 모여 가지고 알기 쉬운 지표로 하자, 그러니까 GRDP 같은 게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래 가지고는 시민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경제지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주비빔밥이 판매가 잘되면 경제가 좋아진 거 그거를 100% 얘기하지 않지만, 소통하는 의미로 둔 거죠.

물론 전주에서는, 이거보다 더 그 성과지표랑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표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지표를 설정해 놓으면 ‘비빔밥이 10만 그릇 더 팔렸다.’ 이렇게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전주의 경제사정이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비빔밥이 더 많이 팔리니까 식품위생단속을 더 많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전주가 국제도시가 되는데 내가 영어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고,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센터장을 만나서 교육프로그램을 통역서비스 같은 걸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 업무는, 기존에 우리 부서의 정책은 어떤 목표에 기여할까를 서로 생각해 봐서, 같은 목표에 기여하는 업무는 서로 이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는 책이 번역이 됐을 때, 제가 GRDP 그 고민할 때 번역이 됐는데, 이 지역이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어떤 멋진 마을이냐?’라고 보니까, 이 지역의 사바에라는 도시가 일본 전체 안경의 90%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경 팔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인데, 중국이 짠 안경으로 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망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자.’ 그거를 주민들과 행정의 같이 했는데, 이 일본의 지자체를 평가하는 지표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거주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치료하기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17개 SDGs 목표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치료하기 좋은 서울, 기르기 좋은 서울, 교류하기 좋은 서울이면 정말 서울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1위를 한 것들을 쭉 보니까 보육원 1위, 체력평가 1위, 사장 배출율 1위, 그럼 이 지표만 보면 GRDP를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해서 대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을이 애들 돌봐야지.’ 그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마을이 애들을 보호를 해 줬으니까, 개네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되니까 체력평가도 1위 된 거고, 그렇게 잘하니까 대학물 끝에 겨우 잡아 가지고 취직 되니 마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에잇, 내가 사장하지 뭐.’ 이렇게 가는 이게 이 지표상으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속가능발전지표라는 것도, 그 진단의 의미도 있고 평가의 의미도 있다는 거는, 우리 서울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그게 GRDP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진짜 실물경제가 어떻게 이런 고민도 해 보고, 환경지표를 미세먼지 수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실제 다른 영역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정말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어느 수준일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업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여기 지워져 버렸는데, 작년에 그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 전국 그 공모전 대상에 환경부장관상을 이걸로 탔는데, 작년 10월31일 날 이 개관을 했어요.

이 지속가능발전과가 이 도봉구에는 있는데, 그 과가 있기 전에는 건축부서, 사회부서, 환경부서, 문화부서가 같이 논의할 뭐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을 때인데, 여기는 진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과가 있다 보니까 연결지점도 생기고, 이걸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건축부서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머리를 맞댔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6.25 때 이 철원을 통해 가지고 도봉에 이 지역을 장악하면, 전국으로 침투하기 좋았다 이것 때문에, 도봉구에다가 대전차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런 여기 위에다가 3층짜리 시민아파트를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인이 살게 해가지고, 유사시에 적들이 내려오면 내려와서 지켜라 이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웃긴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70년도에는 아주 대단한 작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서 이거는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시설이니까 서로 손 놓고 있었잖아요.

시에서, 구에서 ‘이건 어떻게 할까?’ ‘국방부거라는데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던 거를,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시민들이 서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있던 시설물을 유리를 넣어 가지고 관람하게 하고, 그 옆에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3, 4개월씩 입주해서 살다 가기도 하고, 이것이 전쟁의 상흔이니까 베를린 장벽을 3개 구해 와가지고 세워놓고, 그래서 그 멋진 평화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도봉산에 1년에 천만 명씩 오고, 여기 도봉산역이 있고, 여기가 외곽이 아니었으면 도봉구 외곽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진작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텐데, 아파트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다행히 여기가 생태하천으로 됐고, 생태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는데 이게 늘 문제였는데 저게 딱 핵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장벽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더 자연스러우면 이런 사례들이 더 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목표가 그 수립이 된 건데, 이거 전에 우리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서울 이러면, 4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52개 이 세부 과제들을 붙여놨는데, 그 뒤에 UN목표에 국제표준에 따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7개 목표를 서울시 목표로 만들면서 이 세부적으로 사회영역, 환경영역, 경제영역, 파트너십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서울형

목표로 어떻게 붙일까, ‘국제기구가 17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바다도 없는데 해양목표 15번 목표까지 붙여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국제기준에 따르자, 게다가 그 해양목표는 없지만 그 해양목표에 그 세부목표들을 쭉 보면 ‘폐기물을 상류에서 그 관리를 잘해야 해양이 깨끗하지.’ 이런 목표도 11번 목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17개를 다 맞춰서 서울형 SDGs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 17개 목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게 사실 우리 지속위의 역할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87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나올 때는 경제, 사회, 환경에 접점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이 균형점을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의 국제사회 논의는 사회발전은 하되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하자, 그다음에 사회가 포용하는 선에서 경제가 발전해야지, 그런 동심원 모델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 3기 지속위에서는 이런 모형을 염두에 두고, 17개 목표를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UN에서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 모델을 생각해 볼 때도, 이 동심원 모델을 넣어보면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공공도시를 만들고 그 선에서 포용도시가 되고 창의도시, 활력도시가 되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차근차근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UN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과학자 집단들이, 이 넥서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연결할까?’ 그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목표는 5번 목표니까, 여성 집단이 모여서 5번 목표만 논의해.’ 이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1번 목표는 빈곤 목표를 어떻게 볼까, 빈곤 여성 어떻게 볼까, 여성의 입장에서 농촌 여성 2번 목표는 어떻게 볼까, 여성의 입장에서 3번 목표 보건 목표는 어떻게 볼까 그런 논의를 계속 하자라는 거고, 그게 아까 실국 단위로 있었던 공무원들의 내 업무 그게 아니라,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 전략에 내가 어떤 목표나 전략에 기여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 역할을 지속위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7번 목표는 수단적인 목표인데, 16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원은 어떻게 하고 파트너십은 어떻게 할까 그런 목표가 들어 있는데, 16번

목표는 수단이면서 이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16번이 평화, 인권, 제도, 민주주의 이런 건데, 인권이란 관점에서 1번 목표를 어떻게 볼 거냐,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4번 목표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 그 지자체들이 서울형 SDGs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이 아까 그 역외유출 최고 피해 도시거든요.

당진에 화학발전소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옆에 돼지축사가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60명 팀장님들이 한 워크숍을 3번씩 해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도 17개 다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목표에 전략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1-1번 전략은 1-2번 하고도 2-1번하고도 2-3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런 넥서스 접근까지 같이 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위에서, 분과를 나누고 지표를 나누고 점검을 하고 그럴 때도 역시 나는 이 역할, 나는 이 역할 이게 아니라 다른 목표는 다른 분야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 생각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을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밑에가 17개 목표가 생긴 건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나는 환경 분야만 얘기하고 나는 경제 분야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경제라는 관점에서 사회는, 환경은 이런 거를 가장 크게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초에 그 지속위 1기 때 만들었던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 전략 이럴 때는 환경, 경제,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4개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17개 목표를 가진 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목표 아래에 전략들이 있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가 다 붙어 있고, 이 부서별로 이 단위과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서단위 별로 세부사업들이 있고, 각 세부사업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성과지표가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5만 호에다가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그러면, 정말로 5만 호를 보급했는지 그거를 이 평가하는 거는, 우리 평가담당실에서 공무원의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담당부서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이 기후변화 전략본부의 역할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거는, 하나의 등대이거나 지침인 거죠.

그 등대나 지침이 계속 떠 있는데, 나는 저쪽 부서가 아니니까 내 책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경제부서도 사회부서도 ‘온실가스가 올해는 계속 늘고 있네, 줄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 이 세부사업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단위과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없으니까, 이 성과지표만 보고 측정 가능한 거 그다음에 투입지표 이 정도만 늘 생각했을 텐데, 우리 부서의 업무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까, 그거로 바꾸자는 것의 지침이 이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호 보급을 잘 달성하고, 서울 의제를 잘 지원하고, 이 도심 내에 자전거 도로망을 많이 늘렸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줄였느냐,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서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울의제에 에너지복지 쪽만 계속 지원했더니 별로 온실가스 배출에 그 기여를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 에너지복지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의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1기, 2기 그리고 3기로 왔는데, 실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냥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모



이는 거, 그다음에 또 명사들을 모시다 보니 자주 못 나오시는 거, 그 다음에 그 행정체제랑 연결하는 게, 서울시는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또 거버넌스 구조가 작동이 되고, 이거 아니라도 잘 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 이게 행정체제 까지 잘 전달이 되는 게, 이 2기까지 와서야 이 얘기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1기 때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만들자, 개념을 확산하자, 그다음에 서울이 지속발전도시다,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데는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그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실험적으로라도 수행해 보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46번 했다 그렇게 하면 46번 많은 것도 같지만, '3년 동안 이 분과 별로도 한 것까지 합해서 46번 저거는 너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 1기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이메일에도 답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셔도 그렇게 했던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원칙을 잡았다, 시범평가를 해 봤다, 토대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실험만 할 거냐 이게 또 한계로 되겠죠.

위상이 메타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냥 어나 더위원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 한 거냐, 여기서는 메타 거버넌스로 그렇게 했죠.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위 2기 때는 이 거버넌스 개념을 확대를 하자, 확산시키자, 그래서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의 상당수를, 이를테면 교육 쪽에 네트워크 조직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보육 쪽에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거죠.

그래야 여기에서 메타 거버넌스의 논의를 해서, 나는 교육영역에 가서 종합적인, 통합적인 관점을 갖자고 얘기하고, 나는 복지 쪽에 가서 통합적인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도는 좋았고 의도도 일정 정도 달성이 됐는데, 이게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자주 모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기반 소위, 수립 소위, 산업혁명TF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각각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SDGs를 만들었고,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이행계획을 수립했고, 조례도 통과했고, 이 시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치구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봉구나 성동구나 이런 몇 군데 같이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전처럼 우리 이창호 박사님한테 딱 맡기고 우리는 손 놓고 있고 그런 식이 아니고, 1년 내내 그 과제 팀하고 같이 SDGs를 수립해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성평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평가추진계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 대중교통계획 아니면 마을공동체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전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의견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 추진기반을 확산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 산업협력 TF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계획 차원에서 메타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당장의 현안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산학, 이 산업 쪽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과를 넘어서서, 이렇게 TF로 참여 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셨던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과제라고 하면 이 본위원회가 역할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막 돌아가고 용역과제로 따로 돌아가고 TF가 잘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총괄 역할을 하는 거는 또 약했던 그런 측면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이행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행정의 정말 나는 무슨 실국의 내용을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몇 번째 목표에 몇 번째 전략에 기여하는 내 업무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3기 때는 그런 과제를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로드맵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을 마련했다, 지속위가 출범을 했다, 그게 사실은 이 그림이 2016년에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17년, 18년이고 그랬는데, 살짝씩 밀린 거겠죠, 연도가.

어쨌든 이때 1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만들고 이행계획을 다 붙였으니까, 기반은 마련됐으니 이제는 본격화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이행계획들이 붙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내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2020년부터 행정체제가 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3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분과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까지로 보면 내년 말까지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부터 2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굴러가는 건데, 지금 이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행계획도 선정 부서별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내년 중반기 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지표와 기존의 이행계획을 점검한 내용이.

그래서 이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도 아까 부평구에서 주민센터를 만들 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럴걸.’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이행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리고 운영체계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행계획도 점검하고 이 지표평가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그 상반기까지 이 지표나 이행계획들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내서, 내년 보고서를 내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 제2차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팀의 경우는 실제로 SDGs지표를 확정 지을 때도, 전체 시민들한테도 여전히 이 지표가 맞냐 틀리냐, 이 지표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 기존에 지표를 적용해 보면서 이거는 대표성이 없다, 이거는 실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해 가면서, 내년도에 상반기 때는

그 수정하는 지표를 확정 지표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눌러지면 잘 안 눌러지면 이게 잘 될까, 그런 고민인 거죠.

( 다수 위원 웃음. )

그런데 올해 이 시범평가들은, 아니면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거는, 그 상호작용이 조금씩 돼 가면, 공무원 입장에서 '저거 그냥 캐비닛 보고서가 아니고, 캐비닛 목표가 아니고 이게 그 내 업무가 어떤 목표랑 어떤 전략이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느끼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00위원

딱 맞춰서. ( 일동 박수! )

시간을 뭐 너무 잘 맞춰서, 예, 지속가능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지난 1기, 2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차도 너무나 잘 맞춰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토론은, 다음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시죠. 진저티 프로젝트 서현선위원장님 예. ( 일동 박수! )

선미라 위원님. ( 일동 박수! )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쉬시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수길 간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3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안건으로, 안건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000위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앞 시간에 그 오수길 간사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과와 3기 로드맵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그 향후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발표내용에 대한 뭐 질문이 있으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각 자리에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나요?

손을 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들어주시고,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위원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그 지난 회에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됐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 51페이지에 3기 로드맵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지표 부분에서 지표를 검토 및 수정하면서 그다음에 평가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또 수정을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수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요.

000위원

그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검토 및 수정, 평가는 검토와 평가는 제가 보기에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거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 나중에 분과위원 역할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 지금 연혁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UN에서 그 SDGs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기본조례, 기본계획, 이행계획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용역들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표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는데, 2기 후반에 그 지속위원들이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전부 이 정합성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목표를 새로 설정을 해서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17개 목표하고 그다음에 95개 세부목표를 한 건데, 그게 작년 11월 달에 확정됐거든요, 2011년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지표나 또 이행계획이나, 그다음에 무슨 행정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뭐 3월, 4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해야 될 일이, 그 당시에 그러고 조금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그 목표, 지속위에 목표 중에 지표까지도 해 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까지 하다가 보면 2기에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해서 ‘그냥 목표와 세부목표만 만드는 거로 하자, 그리고 3기에 거기에 맞는 지표와 이행계획과 세부계획, 행정계획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목표와 세부목표에 그 정합성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3기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기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검토 및 수정 그리고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검토 및 평가 그리고 수정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거를, 특히 그 분과에서 아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000위원

제가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000위원

예.

000위원

예, 평가담당관입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재 19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지속가능발전 지표라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게, 이 18쪽, 19쪽에 있는 30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얼마만큼 우리가 목표치에 달성했는가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2쪽 있듯이, 2쪽에 보시면 서울시 추진경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과거 거하고 크게 뭐 완전하게 다르지는 않는데, 다시 업데이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지표는 아직 우리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30개 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이

30개 지표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2030에 정확히 맞는지를 한번 보셔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지표를 변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를, 이것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분과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저희가 줄까 생각하고 있고, 서울연구원에 1차 협의했을 때 거기서 할 수 있겠다는 답까지 받았습시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을 용역 하는 과정에 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면, 그 만드는 중간에 간섭하면 최종본이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안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0위원

예, 저는 지금 그 계획은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특히 그 지표 평가 및 개발 분과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그 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그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0위원

예, 말씀하시죠.

000위원

예, 아마 그 분과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을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 저희 점검 분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중간에 쉬면서 조금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는 2015년에 설정이 됐고 우리 그 SDGs 2030에 해당하는 거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점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지,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앞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2018년 상반기에 시범 점검이 있고, 2018년 하반기

기에 본 점검이 있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범점검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000위원

예, 제가 간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그 기반마련 기간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수립,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이행계획수립이라고 맨 좌측에 있는데, 그 점검 분과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이행계획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행계획의 사업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는 저희가 1차적으로 받아서 위원회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해도 되고, 분야를 나눠서 이번 분야, 거 환경 분야만 먼저 보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결정한 대로 따를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저기 가서 말씀하는 중에,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담당자들의 인터뷰가 중요하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여기에 잘 응해 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직원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응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저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 가지고, 저는 그 여기 점검 분과위원회에서 이행계획, 시행점검 및 본 점검인데, 지금은 그 기존에 저 이행계획을 서울시에서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표하고 세부목표가 있는데, 이 이행계획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하고 정합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를, 그거 자체를 지금 점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행계획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자체가, 과연 목표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상당히,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부분은 일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점검 분과에서 나름대로 뭐 빼고 집어넣고 더 다른 그 계획 뭐 세부사항들



을, 그런 작업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금 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잘되고 있는냐는 먼저 이것이 얼마큼 정합성이 있느냐 하는 새로운 이행계획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예, 말씀하세요.

000위원

예.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세워진 계획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7년 말에 목표를 약간 틀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틀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2019년도까지는 그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되, 다시 2차 기본 계획을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19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점검하면서 ‘지표는 아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19년도에 2기 계획을 4년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검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 서울SDGs사업하고 맞지 않다, 지금은 점검하지만 이것은 다음번에 빼야 돼.’ 이것까지 뭐 검토하시면 훨씬 더 다음 계획 수립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저는 그걸 주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예.

000위원

논의를 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뭐가 잣대가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정할까요?(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아니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그러

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계획에 따라서 그 점검을 하되,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새로 그 17년 말에 세웠던 이 계획하고의 그 정합성을 따지는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그 새로운 계획, 이 두 개의 정합성을 맞출 때, 결국은 지표평가 및 개발 분과하고 이 점검 분과가 그런 의미에서 서로 굉장히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다음에 지표로서는 적적하지 않다.’라는 거를 전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하는 쪽에서 그거를 받아서,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시죠.

000위원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저도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이해가 됐었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 안에서 약간 헤안이 있었는데, 여러 분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처음 참여하면서 한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지금 30개 지표가 있고 그것은 2018년, 19년까지의 사업들을 점검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018년도에 시범점검, 본 점검에 이 328개의 계획들을 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일부 지표들에서 약간의 의견들이 더 추가된 것이 있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원래 있던 30개 지표로 하는 건지가 약간 혼란스러워, 말씀 중에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고, 그러면 그 올해 이런 과정들을 성과평가나 이런 지표를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서, 2020년부터 새롭게 계획하는 2차 계획에 필요한 지표를 이쪽 팀에서도 새로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000위원

예.

000위원

예,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러면 이 추진 강화 여기에 점검 부분에서 여기 하는 거에서는, 작년에 여기 자료 보니까 5개 자치구 뭐 진행한 것이 있다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위원

아, 아무래도 지금 말씀 나누는 거를 들어보니까, 각 그 분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00위원

그런데 이미 저 지표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는 이미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요. 그다음에 점검 분과도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000위원

다시 명확하게요.

000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자료집에 더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표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에 지금 지표시범평가, 본 평가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간사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표가 지금 여기 지금 뭐 한 3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그 2기 1차년도에 11월 달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을 서울시에서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셔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SDGs 목표하고 그다음에 지표까지 다 개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토론을 거쳐 가지고, 2016년도 11월 전체토론회 때 뭐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 뭐 목표, 지표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 숙된 말로 엑스표를 치고 그리고 다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일종의 지표개발소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도 그거를 위원 책임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한 여섯, 일곱 분들이, 하여튼 여름에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논의를 거치고 하고 숙제 내주고 뭐 그래 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그 17개의 목표와 그다음에 95개 세부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를 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표까지 하면 아예 일을 시작을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3기로 지표는 넘기기로 하고, 목표하고 세부목표까지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전체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일단 공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이미 그 안을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뭐 해서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그룹의 미팅도 하고 뭐 해가지고,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당시에 생각은, 앞으로 이행계획이 됐든 이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됐든 이거는 전부 앞으로 그거에 대한, 우선은 그거는 그때 만든, 2011년도에 확정된 17개의 목표와 95개 세부목표를 가장 위에다 놓고, 그리고 모든 그 이외에 있는 하위에 있는 지표 플러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뭐 이행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세부계획들, 그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가 맞추는 작업을 해 보자, 하는 게 그 당시에 생각 2기 마지막의 생각들이었고, 그거를 3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그 2기 분들의 바람이었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지표, 시범 평가, 본 평가를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표 자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이행계획 시범점검, 본 점검처럼 기존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아마 그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아

마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뭐 어떤 조례나 뭐 이거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하기는 하되, 그때 제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바뀔 건데, 바뀌지 않은 그 지금 ‘부족한 지표를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꼭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하되, 저는 저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우리 저 지표평가 및 개발 분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표를, 그 목표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다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요.

그거를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합성 높은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이라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얼마큼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씩 지금 뭐 점검을 할 필요는 있되, 지금 있는 지표를 기본으로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 것인지, 그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000위원

그 추진기반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000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점검 분과위원회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뭐 시범점검, 본 점검이 있는데 이행계획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목표와 세부목표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행계획 자체를 뭔가 수정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그 지금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평가에서도 지금 행정계획에 30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손을 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그 서울시 내 타워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녹색위원회나 다른 뭐 지자체 이런 데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위 3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와 세부목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래서 지표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이행계획이라든가 행정계획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SDGs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하는 건데, 그 확산을 해 주는 그 작업을 해주실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기반 분과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확산의 대상은 뭐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민, 지자체 또 뭐 기업까지 해서 이걸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저기 뒤에 두 번째에 협업전파 및 관련 과제 발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에 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의 방법으로서, 지금 여기 학술대회 개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올해 11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말씀 해 주시죠.

000위원

예,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게 되는데,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해서 2017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지표 평가 결과, 그다음에 이행계획 점검 결과를 2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서, 2017이기 때문에 2019년도2월까지인가 내게 돼 있습니다,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9년2월로 잡힌 게, 보고서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조례 입안이 있고, 또 그 정도는 하

라고 조례 강행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견서,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 책자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범평가, 본 평가 또 시범점검, 본 점검 했는데, 원래는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양들이 많기 때문에, 지표 같은 경우는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연말 기준으로 보통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것들은 연말에 안 하고 6월경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나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한다고 그러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미리 나오는 지표들은 상반기에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늦게나오는 지표들은 하반기에 들여다봐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자료,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행계획 같은 경우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분야를 나눠서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할 필요도 있는데, 하여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 나눠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00위원

그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기 지금 그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는 이걸 기본으로 하되 관심 있는 분과에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2기에서 사실 그런 우리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각 분과별 회의를 소집을 그 할 때, 그때 꼭 분과 분들한테만 연락을 드리지 말고 전체로 해서, 그 어떤 그 이슈가 미리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분과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예, 저도.

000위원

예, 말씀하시죠.

000위원

예, 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또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그 문제점이 적고 효율성이 좋은 거를 찾아서 나가는, 그게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지표가 완성된 거냐, 지표는 수정 가능한 거냐, 저는 픽스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중간에라도 또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바뀌어나가야 되는. 예를 들면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외국인 관광객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서울시 관광발전협의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관광객 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만, 요새는 제가 서울시 관광선언문도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민이 행복해야 되겠다, 서울 시민이 행복해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다음에 무조건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관광이 중요하다, 또 공정관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안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러면 현재 있는 이 지표는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면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뽑아 가지고 새로 수정을 하고 바뀌어나가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또 저도 여기 작년에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쓰라고 했을 때, 그전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부위원장님 있지만 의논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계획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 그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자, 그 당시에라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샘플 갖고만 이렇게 하다가 말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의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의가 있다는 거는 기존에 안 하던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맞춰줘야 되는 상태에서 획 빨리 지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잘못하면, 이 지속 위가 모든 거에 맨 위에 있는 상위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것 마냥 '여기를 패스해 주면 안 돼.'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도와주고 서로 분산될 수 있고 흠어질 수 있는 거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때부터 아닌 것 같고, 더 유연하고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 주는.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많은 일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해 주겠다는 것도, 저는 그거는 안일한 것 같아요. ‘특정 분야에 대표적인 샘플로서 샘플케이스에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다른 분야도 적용하겠구나.’라는 그런 샘플케이스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안을 해도, 더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도 작년, 재작년 진행하는 과정 보면서 전반적으로 뭐 아주 뭐 훌륭하게 잘 진행했지만, 아쉬움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체회의를 할 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거 하고 온 위원들을 보면, 그 자리에 있어서의 뭐 그냥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 있으면 참여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참여는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롤이 부여가 되고 했을 때, 자기가 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 되고, 또 하나는 전체 흐름에 스트럭처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고 그 상황을 알아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보면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그 분 정말 고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가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니까, 회의 와서도 뜬금없는 얘기만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빠지고, 빠지고 그러다가 뜬금없는 얘기 한 번 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대로 가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기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더 욕심을 버리고 꼭 해서 진짜 보여주고 또 확산시키고 해야 될 것들이 뭔가에 대한 거를, 한번 타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경우 ‘타 분과 있는 사람 관심 있으면 오시오.’ 하면 저 안 갑니다, 사실은.

오라고 그랬을 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꼭 오실 분은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얘기합시다.’라고 그렇게 롤 플레이가 되어야지만 하지, 뭐 저도 다른 데서 위원장을 많이 하지만 위원장, 부위원장님 또는 간사 분은 애를 써도, 나머지는 손님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여기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000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각종 위원회에 가보면, 가 가지고 잠깐 그 앉아서 회의하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위원회 가기 싫어지고 이러는데, 사실 지속위가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공유도 잘 되어야 되고, 목표 설정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역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부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000위원

예, 배우러 온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에 기본법이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행정들이 맞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법이 아까 말한 대로 격하가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조례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관례라든지 법 개정 문제가 다시 있는데 기본법 문제가 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을 저는 추진기반 강화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 법 개정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표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는 지표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이유들은, 시민들에게 이 지표를 쉽게 알려내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

기 위해서, 지표를 저희들은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늘상 바꿉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심 온도 측정문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표화 할 건가, 이 데이터가 저희가 전주시 내 한 200개 온도를 측정을 해서 매월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표화 하는 문제들도 있고, 심지어 하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방문자 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예를 들면 우리 고유종인 쉬리가 어디까지 진출을 했는가, 그다음에 베스는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아이들 생태적인 교육에도 이게 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상태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물론 여기도 큰 지표 30개 지표 중에서 산출방법이 있을 거고, 이 방법 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만 해도, 저희가 한 거기 지표가 50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 60만 단위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생활과 아주 밀착하고 호기심 나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거창한 이런 국가계획 자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사회조사라든지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조사에서 지금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 상당한 부분의 내용들은 통계청 자료로 그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되고, 요즘 또 통계청에서는 특별하게 관심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노인 보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특별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통계청, 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관을 하되, 어쨌든 시민들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있을까 싶은, 그래서 지표가 전체적으로 쉽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법에 여러 가지 장벽들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러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 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접점을 찾아 가지고, 뭐 아까 종합행정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강조하셨는데 그런 게 가지 않을까, 우선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000위원

저 잠깐, 조금.

000위원

예, 하세요.

000위원

얘기 들으면서 약간 그 보완이기도 하고 비슷한 의견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어쨌든 이게 조례가 있고 또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절차와 그 행위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2기에서 하셨던 선생님들 말씀들 어보니까, 지금 있는 걸로 본 점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거기에 저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해야 되는 만큼만 행정에서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공동과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거는 분과를 나눠놨지만 다 같이, 그게 제가 지금 계속 드는 생각들은, 그래서 그 뭐 저 3개의 분과가 있지만 첫 번째, 마지막 거 이거는 실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저기 무슨 추진기반 강화 분과인데 뭐 확산, 발굴, 수시 이런 거 되게 막연하거든요, 저희들이 맡기에는요.

어차피 또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면, 거기에 의견을 하고 자문을 하는 것들인데, 제일 그래도 저희가 공동과업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 그거 같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예.

000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표가 어떤 목표와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돈이 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표가 개발이 되는 것이 목표와 목적에 맞는 포괄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표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소통을 하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해 주는 지

표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표가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점검할 때 사용되는 것이 주기능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더 주요한 기능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표가 어떤 목표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톤과 매너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들이 할 역할도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해지면 오히려 지표를 어떻게 어떤 각도로 우리가 볼 것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마 특히 첫 번째 목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목적과 목표에 다 지금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가, 이걸 굉장히 포괄적인 지표와 전반적인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방향성을 들어내 준다는지 실행에 초점을 맞춰주는 지표는, 상당히 그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방향성이 들어간 질문들이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만약 시민 대상이라고 하면, 훨씬 더 생활어 수준의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향성까지도, 이렇게 개발 분과나 이런 데 맡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한 목표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인지 한번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0위원

부위원장님께서.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그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17개 목표와 그다음에 각 목표별 세부 목표들이 쭉 95개 목표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표는, 과연 지금 이 목표가 얼마큼 잘 달성이 될 수 있느냐 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내용들이, 이 목표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평가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잘되고 있는지를.

000위원

측정 가능한,

000위원

예?

000위원

측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000위원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이 통계자료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지표로 삼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달라고 해서 제가 95개, 그러니까 17개 목표하고 세부목표를 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그 18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30개의 지표가 있는데, 맨 밑에 도시농업 실천 공간 면적이라는 이 지표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이거의 면적이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목표와 세부목표를 만들 때, 과연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해야 될 일이나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확 줄이고 그 내용을, 이 목표를 어떻게 잡냐 하면 2번이예요, 목표 식량농업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 두 번째 목표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농업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저 개인으로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시민들이 주말에 가서 텃밭 파고 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그 커다란 목표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기 지금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개선,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잘 이게 될 것인지 그 소통을 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도시농업 실천 공간 면적이라는 지표는,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표이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뭔가 그 유통구조 개선에 관련된 어떤 지표가 나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꼭 여기 그 당시에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눠 가지고 10개씩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사실 이걸 만들면

서 이거는 편의상 논의 구조상 환경, 사회, 문화, 경제로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다 하는 게, 또 2기에서의 나중에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17개는 17개의 목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는 환경에도 들어가고, 경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꼭 또 10개씩 다 이렇게 찾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이런 거보다는, 그 숫자에 우리가 꽤넘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95개의 세부목표에 맞는 지표를 뭔가를 만들자, 그런 거를 사실 기대를 하면서 2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표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목표와 세부목표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를, 뭐라 그럴까 평가라는 말을 쓰면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의 지표 그러니까 앞에다 '평가'자를 붙이면 명확해지죠.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000위원

지표가 측정 가능한 것도 있고, 진단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측정 가능한 사실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진단 가능하다는 것은 각 개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만약 이게 이 지표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지표라고 한다면, 진단 가능성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주거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는 진단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고민했던 게, 이게 만약 공무원들을 위한 지표라고 한다면, 측정 가능한 것들이 많은 게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사실 시민들 측면으로 간다면 시민들 누구라도 진단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공유된 지금 결론이라든지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000위원

그 부위원장님이 작년에 종합을 하셨고, 그 17개 목표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네 분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4명이 다 이걸 만들 때 지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확정하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표가 무겁다, 뭐 이거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기초적인 지표는 저희들이 그 4명이 다 갖고는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진단도 가능하고 측정도 가능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되게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당시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지표만 만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의 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 저희 자료들 중에서 이미 지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공감을 이번 3기 때 얻고 그다음에 거기다 뭘 더 추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무겁다든지 가능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000위원

예, 먼저 말씀하시고 그 간사님 나중이에요.

000위원

예, 그 우선은 서울시에 지속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 하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해 봤습니다.

그 오 교수님 말씀도 좋은 강력한 추진 수단으로서 환경, 사회, 경제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경제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지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활동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대기업 중심의 뭐 화석연료 쓰면서 CO2가 배출하고, 또 일부이 어떤 경영을 승계하기 위한 어떤 뭐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게 사실 경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부의 대다수가 대기업이나 많은 재벌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 하는 건, 파지 줍는 사람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실제 절대 빈곤자가 지금 우리 통계에는 한 8%, 9% 되고, 도시빈민까지 한다 그



러면 도시, 서울은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도 다 사실은 경제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도망갔는데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파지 주워서 한 한기 등록금 내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도 다 경제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경제가 사회에 종속되고 또 그것이 환경에 종속되고 이런 개념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워낙 큰 그런 광범위한 분야가 옛날에 수렵 활동하는 것도 다 경제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DGs 제일 1번으로 꼽는 게 빈곤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제일 1번으로 꼽는 게 빈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표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존재 이유가, 소외계층이나 절대빈곤자나 절대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잘하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목표도 잘못 설정이 되고, 집행도 잘못 설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 교수님 논리를 제가 반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000위원

제가 살짝 반박 드리면,( 다수 위원 웃음. )

경제, 사회, 그 동심원 모델이 종속 관계가 아니고, 옛날에 폴라디가 얘기할 때, 태초에 시장이 자본주의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태초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자로 사회자로 이런 개념에서 동심원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그 헛갈리게 되는 게, 어떤 우리 자료집에 17~18페이지에 있는 게 2015년 당시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목표랑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조례에 의하면, 내년 2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이 목표와 지표로 평가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뒤에 국제표준에 맞춘다고 그래서, 17개의 목표로 그 전환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17개 목표까지는 확정을 지었는데, 17개 목표에 따른 지표는 그 용역 팀에서는 했지만, 그 지속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거

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2019년2월까지의 그 혼재된 상태에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행정적인 의미에서는 2019년2월에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에는 이 목표와 지표를 적용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행계획을 검토한 그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미 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TF가 가든 아니면 행정에서 다 만들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속위 위원님들의 그 가장 큰 저기 역할은, SDGs 체제로 전환하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목표는 이미 있으니까 지표도 그 17개 목표에 맞는 지표를 새로 그 만드는 거, 그 작업을 지금의 30개 지표를 적용해 보면서 ‘이거는 너무 아는데, 다음에 내년도에는 빼야겠다, 그다음에 SDGs 차원에서는 더 넣어야겠다.’ 이거를 17개 목표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행계획을 이 목표와 지표에 따라서 2기의 계획을 쪽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행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17개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6번 목표는 텅 비어있네, 그 이행계획을 뒤져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2월 달에 나올 보고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16번 목표는 왜 인권에 관한 정책은 비어있는지, 왜 물 목표와 관련돼서 6번 목표와 관련돼서는 그 업무가 많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그 19년2월 보고서에다가 담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년 내내 그 2차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표나 이행계획 점검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범평가, 본 평가라기보다도, 그러니까 17~18페이지에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작업 더하기 17개 SDGs를 보면서 새 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000위원이 말씀하셨나, 저기 추진기반 건 1차 그 의견수렴해 보니까 추진기반으로 다 들어가셨던데 ‘그게 기반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쪽에 다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아까 저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 그때 그 모이는 역할을 하시도록 하고, 기본적

으로는 이행계획 점검이나 이 지표 그 점검, 개발 이쪽에 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때마다 오는 거 말고, 거기 분과위원회가 준비를 하 되 지표를 보면서 환경 쪽에 지표를 오늘은 집중 논의한다, 그럴 때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 분들이 '나는 특별히 환경영역에 이행계획이나 아니면 지표 쪽에 관심이 있다, 나는 경제 쪽에 관심 있다.' 그걸 표시 하시도록 하셔서, 이행계획 점검이나 지표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일종의 환경영역에는 어떤 분, 경제영역에는 어떤 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각 분과별로 움직이되, 그 영역에서 지표를 얘기할 때 이행 계획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면 될까 싶습니다.

000위원

잠깐만 저기, 제가 한 말씀 또 드려도 됩니까?

000위원

예.

000위원

지표하고 관련 중에서, 우리 지금 오 교수님께서 17개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개마다 5개 뭐 어떤 건 3개, 어떤 건 7개의 세부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목표를 사실 오늘 여기 자료집에도, 세부목표가 95개 세부목표가 있으면 훨씬 논의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 세부목표를 보면 지표의 감이 금방 와요, 사실은. 예를 들면 3번 목표가 건강, 웰빙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이 목표인데, 거기 3.1 세부목표가 뭐냐 하면 산모 사망률을 2016년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그러면 지표라는 게 뻗히 나오죠, 여기서. 산모 사망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95개의 세부목표를 보면서, 지금 있는 여기 30개 계획은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거는, 거기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을 해 주십사하는 게 기본 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량적인 것들이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정량적이예요.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속위에 그 지금 분과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로 안 잡히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표를 만들어놓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 저 대학에 계시는 분들 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정성적인 거는 어떻게 하냐, 뭐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추정해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느냐, 방법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95개 세부지표를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000위원

예. 지금 뭐 더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000위원

예,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표에 최근에 사회 변화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심이 됐던 건, ‘이미 이전 작업들을 통해서 꽤 정교한 정도까지 지표 개발이 사실은 되어 있구나.’라는 ‘그 히스토리를 열심히 배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 작년, 올해만 해도 되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과 사람들이 격렬하게 느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성 이슈도 그렇고 뭐 환경적으로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지표 안에서도, 얼마나 공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변화 흐름 얼마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가 부분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000위원

예.

000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000위원

예.

000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기업, 타지자체와의 뭐 지속가능한 협업, 과제 발굴, 또 확산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만 지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도 2기에 참여를 해서 많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꼭 그렇다고 결정내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그 위원님들이나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시각이 ‘야, 기업은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그러니까 니가 뭘 할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의 포괄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에 대해 니즈랑 언 일치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표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 발굴 하시는 그런 분과의 추진위반까지 세 분과에서 들여다보실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참여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기업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업은 ‘왜 저렇게 이 사회적 책임, 자기네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책임을 안지지?’라고 하는 시각이 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그 지표 개발을 하고 확산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니즈라든지 서울시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0위원

저도,

000위원

예. 잠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000위원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17개 목표에 95개 세부목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95개 세부목표에 맞춰서 하나씩 지표를 붙인다고 그러면, 지표가 95개가 돼야 될 텐데, 그중에 시민들이 꼭 궁금해 하는 거나, 소통하기 좋은 거, 그런 대표 지표를 17개 목표마다 한 개씩 내지는 두

개씩 하면, 17개 내지 34개 대표 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95개 지표로 관리를 하되, 시민들과 소통할 때는 그 대표 지표를 가지고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0위원

예, 다 먹고 하시죠.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예, 그 다른 두 분과는 조금 저희하고 고민의 지점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점검이다 보니 저희 직업상 변호사는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내 의뢰인 누구인가?’거든요. ‘후 이즈 마이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 다이 클라이언트’거든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모르면, 그러니까 기업을 예를 들어서 자문할 때 기업을 자문하는지, CEO를 자문하는지, 주주들을 자문하는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솔직히 점검 분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매니저블한 그런 업무라면 아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점검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성이 누가 있는지도 그건 아마 1년 내내 싸워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논쟁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저희 점검 분과는 아주 처음부터 간단하게, ‘저희의 의뢰인은 또는 저희의 점검 대상은 공무원이다.’라고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 추진기반 강화나 지표평가 쪽에서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 저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은 상대로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저희의 점검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의뢰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점검 분과에서 나오는 결론이 결국 다시 피드백을 이루어서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아까 잠깐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아마 어느 시점에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저 이행계획 시범점검이 아니라 본 점검 단계에서는 최소한 스테이크홀더들,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에 그 각각의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대면 점검이 있을까, 정확하게 하면 대면 점검은 아니고 오히려 그 시점에는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만든 어떤 점검의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것은 저희는 안 할 테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디스클레이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위원

예, 저 그 한두 가지만 보태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처음에 제가 ‘도대체 뭘 평가하고 뭘 점검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계획 시범점검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행계획 자체를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시범 점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표의 달성을 시범평가하고 본 평가한 후에, 그래서 서울SDGs와 정합성 높은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소통이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점검 분과위원회도 이행계획의 수행과 뭐 수행결과를 시범 점검한다, 이렇게 되면 ‘그 이행계획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그거에 기반 해서 서울SDGs와 정합성 높은 이행계획을 뭐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할 일이 굉장히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점검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계획이나 지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수행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성찰하기 위한 그런 잣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평가분과위원회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000위원

이리 오시죠.(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난 2기에서 추진기반 강화 분과의 위원장을 했었는데, 분과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

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서울시 자체가 큰 틀을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 색칠을 하는 건 다 자치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치구에서 어떤 성과들, 정말 흥미로운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성과를 홍보를 해서 ‘우리도 저거 따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꾸준히 저는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분과의 각자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뭐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렇게 그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두 분 말씀, 아,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000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000위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 이행계획 시범점검, 본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게 주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그럼 19년도, 20년도에 새로운 2차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저 이행계획 혹은 행정계획의 대상이 될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이 점검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행계획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목표와 세부목표가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행계획 대상들이 그 목표와 세부목표 하고 정합성이 있는 건지, 일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까 그 지표 분과에서 하듯이.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시범점검 혹은 본 점검을 하는 것은 하는데, 저거는 오히려 상당 부분 나는 실무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저거를 주 업무로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점검하는 혹은 평가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이 지금 제대로 일관성이 있는 거냐? 그 세부목표하고.’ 그거를 오히려 점검하시는데 더 시간할애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했던 17가지 그 SDGs의 이행계획으로 세우는 그 계획,

000위원

그건 목표요.

000위원

아니 그러니까,

000위원

그 17개는 목표고요.

000위원

그 전에서,

000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000위원

그렇죠.

000위원

그것만으로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000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하라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어느 한,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이행계획의 어떤 그,

000위원

결과요.

000위원

진행사항이요.

000위원

수행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부위원장님께서서는 그게 아니고 정합성이 있는 그런 그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거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000위원

명확하게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저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될 수도 있어서요.

000위원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00위원

예, 저도 자꾸 마이크 잡아서 죄송한데, 자료집 43페이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목표를 4개로 잡든 17개로 잡았든 아무튼 목표가 있고 세부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목표, 세부목표까지 정했으니까, 그 세부목표까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은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거를 붙여놓은 게 이행계획인데, 그 이행계획이라는 것이 그 43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담당부서별로 이행 과제를 만들고 단위과제를 만들고 세부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행계획이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를 점검하는 건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점검은 기본적으로 평가 팀에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편드를 만든다, 전기요금을 만 원 이하에 뭐 5만호를 보급한다, 이런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평가는 평가 팀에서 하실 텐데, 그런 사업들을 세부사업들을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이 지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점검인 것 같아요.

000위원

그러면 저희 점검 분과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추진 과제가 서울SDGs와 정합성 높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000위원

예.

000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시범점검이나 본 점검이 간다는 거죠.

000위원

예.

000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00위원)

예.

000위원

지금 간사님 설명,

000위원

저 아까 했는데요.

000위원

아까,

000위원

위에 거랑 같은 얘기니까.

000위원

거의 비슷한데 저 우선이나, 선후, 저희는 워낙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규정에 맞는 걸 해 놓고 일단 다른 데대로 해 놓고, 이게 안 맞는데 ‘이 사항들을 다음에는 뺏으면 좋겠어, 이 사업들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것까지 점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000위원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달라요.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예, 아주 다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000위원

예.

000위원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게 2030년까지 계속 가고, 그 이후도 계속 가야 되는 걸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고요, 단지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가지고요.

000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그러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여튼 조례상 요건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그거는 뭐 공무원 수준에서 알아서 해도 건데, 지금 점검 분과에서는 목표는 그거가 아닌 아까 그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데요.

000위원

둘 다 하시면 되죠.

000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세요. ( 다수 위원 웃음. )

000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000위원

예.

000위원

사실은 그 계획을 해서 다른 데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건데요. 꼭 거기 규정에 얽매인 것은 제가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000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보고서를 낼 때, 그 보고서에 분석과 전망이 들어가잖아요. 분석은 현재 이행계획을 잘했는지, 전망은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행계획을 이렇게 잘 짜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0위원

예,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 간사님의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고, 뭐 추가로 꼭 오늘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000위원

예, 하나만.

000위원

예.

000위원

그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관점에서 SDGs에 대해서 이렇게 쪽,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진기반 강화 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업이든지 타 지자체와의 협업이라든지, 또는 이 확산하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시민단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시민단체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나만 무식한 줄 알았더니 많이들 ‘그냥 그런 거 있어.’라고 하지만 그 단체들이 자기가 그런 SDGs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 없이, 물론 시민단체들이 생존에 급급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자기들이 해오던 업무에 대한 관성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제가 일하는 단체, 봉사단체이긴 합니다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끼리 한번 학습을 해 봤더니요. 그래서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이거 조금 더 체화하고 또 학습하면서 단체들이 역할을 하면 그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민단체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래 토론하기로 잡혔던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전에 분과위원회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또 미리 했기 때문에 대충 시간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론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000위원

질문 하나만,

000위원

예,

000위원

사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각 위원회별 역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아까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00위원

바뀌었어요?

000위원

딱 바뀌려고...

000위원

왜 도망가세요?

000위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000위원

항상 있죠.

000위원

아니 아까 저기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단 개별  
위원회 별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  
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3기에서는  
그 지표를 제대로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표평가와 개발 분과에서는 각 영역에 그런, 뭐 지금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포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성이라 그럴까 뭐 아니면 뭐 다  
른 경제영역에 안 계시다 그러면, 그 분들을 지표개발 쪽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에 틀이 ‘나는 거기서만 활동해.’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000위원

아마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 국정 과제 할 때 보면 전담위원 있고 참여위원 있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해서 틀을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치구 컨설팅 단이라는 것, 아까 그 미처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사실은 뭐 자치구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런 부분 지속 가능 의식이라 그럴까,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그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참여해야 뭐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소위원회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의견은, 하여튼 그 3기 위원회에서는 ‘지표를 제대로 잘 개발해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확산시켜 보자.’ 그 지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게 공무원을 위한 평가지표냐? 아니면 시민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지속가능성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측면을 모든 분야에서 그걸 다 관찰시킬 수는 없지만 각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게 생활밀착형, 그러니까 시민에게 다가가는 용어로 표현되는 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그렇게 개발해서, 그것이야말로 뭐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표를 개발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을,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있네요.

분과위원장을 먼저 뽑고 추진계획을 할까요?

000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1차 회의에서 우리가 그 추진계획을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추진계획안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의견 조율을 했던 그 안에서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6쪽을 보시면 시범점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점검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벌어졌습시다만, 결국은 이 시범점검을 하는 이유가, 새로운 지표를 뭐 제대로 개발하고 뭐 그 연관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점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저는 여러분께서 이 추진계획안은 이미 다 보셨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논의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큰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통과시켰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000위원

잠깐만요,

000위원

예.

000위원

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저기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 상당히 묻어있는데, 오늘 사실 토론 과정 속에서 상당히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오늘 나온 내용들을 수정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위원

간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000위원

예.

000위원

예.

000위원

거의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뭐 필요하다면 한두 줄 더 부가해서, 필요한 부분 넣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기를 달 부분은 달아서 수정해서,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확정하겠습니다.

000위원

예, 그러면 그 오늘 토론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일부 수정해서 메일로 회람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과시키되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000위원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이 아까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인데, 부위원장께서 이미 분과위원회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여러분께서 각 분과별로 희망내지는 강제 배정을 당하셨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장이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멤버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하시 때문에, 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러신 분들로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성원이,

000위원

지금 그 성원에 대한 규정은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 규정이 안 되면 사회 일반적인 통례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의결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표 평가 및 개발 분과만 성원이 되고, 점검 분과는 성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분, 오늘 위원장 선출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출을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선출했는데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못 오신 분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정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 분과만 다시 모여서 다시 선출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00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논의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각 분과위원회 회의가 마무리가 된거 같습니다. 지표평가 분과는 원기준위원님이, 추진기반 강화 분과는 한범수위원님이 각각 분과장을 맡아 주기로 하였고, 모니터링 분과는 분과장을 정하지 못해 후보군만 정해 놓았습니다. 박수로 환영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럼 각 분과장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준 분과장님께서 해주시죠.

000위원

어쩌다보니 분과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있는 위원들로 잘 구성된거 같습니다. 화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토론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로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존 지표를 중요시하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0위원

도망가려다가 잡히게되었습니다. 잠시 분과별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첫째 기업확산은 가지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전과과제인데, 쉽게 공감가능한 과제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제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슈 중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햇빛이 많을 때 지자체마다 처양막을 설치하는 등의 과제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3~4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시범사업 풀을 모아 위원의견을 모아 확산가능성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점검분과도 한말씀 해주시죠

000위원

정합성을 신경쓰도록 하겠고, 공무원이 의뢰인이지만 이행계획을 시행하다보면 마지막 도달은 시민에게 효과가 가게 됩니다. 시민이 의뢰인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결국 효과가 있는지 서울시 예산, 인력 투입대비 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분과위원장의 분과방향성을 들으니 이번 지속위는 지속가능성이 시민에게 좀더 인지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제인거 같습니다. 분과위원장님들과 열심히 활동하셔서 3기 지속위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